

보도시점 (온라인) 2026. 7. 10.(금) 15:00
(지 면) 2026. 7. 11.(토) 조간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취약계층 안부확인, 현장 근로자 순찰, 열대야 대비 시설 연장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0일(금)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5시부터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235개 특보구역 중 116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표되고,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는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호우 이후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야외활동을 할 경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고령층·농업인·야외노동자 등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생활지원사 등 지역 안전망을 총동원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야외 작업장 및 논·밭 순찰을 한층 강화하고, 농축산물 피해 예방 대책도 면밀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 현상에 대비해 국민들이 더위를 언제든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의 연장 운영을 강조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폭염은 취약계층과 현장 근로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라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각 부처와 지방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중심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사무관	장현준 (044-205-6366)



폭염 6대 행동요령



본격적인 무더위
● 폭염특보 33℃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실내온도 26~28 유지

시원한 장소 휴식

충분한 수분섭취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